국내 동성애 만화에 대한 현황 연구
: B·L(Boys Love) 만화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동성애 만화의 역사
Ⅲ. 동성애 만화에 대한 현황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안은선

초 록

국내 동성애 만화는 일본에서'야오이'라는 용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일본 뿐 아니라 국내 만화시장에서 인기 있는 장르중 하나로 손꼽힌다. 동성애 만화는 창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에 연재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들을 이용하여 동성애를 소재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동성애 만화는 청소년들이 주 독자층으로 성(性)을 다루면서도 동성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반 소재에 비해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동성애 만화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현상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동성애 만화 그 자체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연구이다. 현재 국내 오프라인 만화시장에서 가장 큰 행사로 알려져 있는 '코믹월드'를 통해 동성애 만화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성애 만화를 구독하는 독자의 연령별 현황과 동성애 만화에 대한 인지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차후 본 연구를 통해 동성애 만화를 보는 10대 청소년들의 성(性) 정체성에 대한 영향과 시장형성에 따른 세분화 된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동성애 만화, B·L만화, 야오이, 팬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과거 동성애라는 용어는 국내 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정도로 배척당하고, 쉽게 듣거나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외국의 유명 영화배우나 국내 일부 연예인의 커밍아웃으로 영화의 소재로도 다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대중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의 급격한 움직임은, 90년대 후반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외국에서 다룬 동성애 관련 소식을 접하기 쉬워지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 동성애를 다룬 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은 단순한 호기심일지라도 뭔가 특별하고 차별화된 존재라는 느낌으로, 동성애에 대한 환상과 동경의식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팬픽(Fanfic)[17]' 이 등장하였다.

팬픽이란 팬(Fan)과 픽션(Fiction)의 합성어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등장인물로 쓴 동성소설이 시발점이었다. 이후 만화나 영화, 드라마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작품을 소설이나 만화, 일러스트의 형태로 패러디하거나 원작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어 표현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초반의 팬픽소설 작가들은 주로 20대 아마추어 여성작가들이 대다수였고, 그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었다. 계속적으로 읽는 10대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직접 팬픽소설을 쓰는 10대 작가들도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쓰여진 내용들은 대부분이 10대 여학생들의 상상으로 쓰여졌기에,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내용들이 많았다. 지금의 팩픽 소설들은 스토리에 대한 내용연출이 인정을 받는 추세라 많이 수그러든 상태이지만, 그 당시 팬픽소설들은 성(性)에 대한 10대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동성애의 환상이 결합하면서, 10대 여학생이 썼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나라한 동성 간의 성관계를 묘사하거나 노골적인 표현이 많아 '야

17) 국립 국어원, 신어자료집, http://krdic.daum.net/dickr/search.do?q=%ED%8C%AC%ED%94%BD, 2011.05.10.

설' (야한 소설의 줄임말)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많은 팬픽 소설들이 쏟아져 나왔던 90년대 후반에는 팬픽소설인『협객기[18)]』가 출판되면서 소설에 대한 인기도가 급성장하기도 했다. 팬픽소설을 통해 동성애가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이목을 끌자, 국내 만화출판사들은 새로운 판매상품으로 외국 동성애 만화 수입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해적판(불법적인 루트로 수입한 책)으로 유통이 되었지만, 일본문화 개방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정식적인 계약으로 수입이 되면서 독자들은 동성애라는 소재를 소설 뿐 아니라 만화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됐다. 상상하며 읽는 팬픽소설과는 다르게 시각적인 매력을 가진 동성애 만화는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동성애 만화는 현재 장르가 따로 구분될 정도로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빠른 성장률에는 그만큼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동성애 만화의 수입 원산지인 일본 출판사에서는 동성애 만화의 등급제한을 세밀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 수입됐던 동성애 만화들은 19세 미만 구독불가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판사들이 아무런 등급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면서, 당시 누구든지 동성애 만화를 쉽게 접하고 볼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성애 만화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순정만화의 장르중 하나로 분류되어있기에 동성애 만화를 가장 많이 구독하는 독자들은 10대 청소년, 특히 여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10대 청소년들의 성(性) 정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현황 연구를 토대로 10대 여학생들이 동성애 만화를 보면서 받는 성(性) 정체성에 대한 영향과 동성애 만화의 인지도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에 기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에 목적을 둔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한 만화전문 서점에서는 동성애 만화책이 약 60%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온라인 매장에서는 대략 2500권이 넘고, 대

18) 이지련, 상상미디어, 1999,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98598, 2011.05.10.

부분 외국에서 수입한 만화책들이 번역돼 나온 것이다.[19]" 앞에 내용은 신문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현재 국내에서 동성애 만화는 다른 만화에 비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웹툰이라는 장르가 있지만, 만화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것은, 앞의 신문기사 일부 내용처럼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동성애 만화이다. 그 비중에 대한 세부적 기초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동성애 만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동성애 만화에 대해 알아보고, 동성애 만화를 구독하는 독자들의 연령대 와 동성애를 접한 시기 및 인지도 현황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동성애 만화의 이해와 국내 현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하였다.

첫 번째, 동성애 만화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았다. 국내로 동성애 만화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처음 동성애 만화시장을 구축한 일본으로부터 동성애 만화의 유래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동성애 만화가 보이는 특성과 구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동성애 만화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들 중에 남성끼리의 동성애는 '야오이[20]', 여성끼리의 동성애는 '레즈물'로 불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용어가 순화되어 '야오이'는 'B·L(Boys Love의 약자)', 레즈물'은 '백합물[21]', 'G·L(Girl's Love의 약자)'로도 쓰이고 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용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작가와 독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대부분이라 정식 사전에 올라가있지 않거나 , 보편화 되지 않은 용어들이 많다. 본 연구는 동

19) 문지혜, "소녀들의 위험한 상상 야오이문화." 『주간현대』, 2010년 1월 18일,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119261&section=sc2.

20) 남성 사이의 동성 연애물, 혹은 그것을 창작하고 즐기는 문화를 통칭하는 말. 본래는 일본어에서 온 말로 <야마나시(やまなし)>, <오치나시(おちなし)>, <이미나시(いみなし)>라는 [주제 없고], [소재 없고], [의미 없다]라는 세 단어의 머릿글자를 딴 약어로 현재는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기원은 1976년부터 연재된 타케미야 케이코의 <바람과 나무의 시>로 이후 충실한 내용 구성보다는 남자끼리의 성교를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위와 같은 혹평을 들어왔다.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EC%95%BC%EC%98%A4%EC%9D%B4&autoConvert=false, 2011.05.10.

21) 여성 캐릭터들 간의 동성애를 다룬 남성 취향의 만화를 뜻한다. 이 용어 또한 일본 아마추어 만화 동인지 시장에서 활성화 되었다. 전문 잡지나 단행본으로 나오는 B·L만화와는 달리 아마추어 만화 동인지 계열에 머무르면서 일부 마니아의 취향으로 취급 받기도 한다. 레즈물이라는 용어도 어감상의 이유로 순화되어 백합물이라는 용어로 불려 지다가, B·L(Boy's Love)의 등장으로 상대적인 G·L(Girl's Love)로도 불려 지기도 한다.
http://kin.naver.com/openkr/detail.nhn?docId=36625.2011.05.10.

성애 만화에 있어 남성소재에 대한 연구를 기준으로 여성소재에 대한 동성애물은 제외하였다. 본문의 내용부터 동성애 만화는 남성소재로 한하여 '야오이', 'B·L'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동성애 만화의 구성에서는 성(性) 역할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는 캐릭터의 기본 특징과 스토리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성애 만화의 스토리라인은 보편적으로 여성독자를 위한 연출과 허구성이 강한 작품과 반대로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위치와 가족애를 다루는 대표적인 작품을 한 가지씩 골라 연구하였다.

두 번째, 동성애 만화를 보는 독자의 연령대별 수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만화행사로 알려진 '코믹월드[22]'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을 기준으로, 동성애 만화에 대한 인지도와 구독 현황을 설문조사하였다. 본 현황을 통해 현재 동성애 만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동성애 만화의 역사

1. B·L 만화의 유래

B·L 만화의 뿌리는 일본의 소녀만화를 근본으로 두고 있다. 1980년대 일본의 소녀만화시장은 기성 작가들과 더불어 신진 작가들의 활약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모든 일본 내 출판사들이 소녀만화잡지를 1권씩은 출판했었지만, 여기저기 나오는 책들로 인해 소녀만화시장은 과부화가 걸리면서, 여러 출판사들이 창간 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간하였다. 이러한 불황에 소녀만화출판사들은 또 다른 영역의 시장진출을 찾기 시작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노출이 되는 것을 꺼려했던 성인물 시장과의 결합을 선택했다. 1978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격월간 잡지『쥬네(JUNE)』의 등장은 당시 많은 여성 독자들의 가슴 뛰는 여심을 불어넣었다.

22) 국내 아마추어 만화 종합 행사이다.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구입해서 읽는 독자들과 교류할 뿐 아니라, 만화가들끼리도 교류 및 정보를 공유한다. 1999년 5월에 개최하여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은 이틀 동안 진행되며, 동아리 판매전을 통해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직접 제작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다. http://www.comicw.co.kr.

남성처럼 보이지 않는 두 남성이 매혹적인 포즈로 뒤엉켜 있는 표지그림을 보면, 독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일본 출판사에서 전문 잡지로 등장한 B·L 만화의 시작이었다. 처음『쥬네(JUNE)』는『코믹 준(JUN)』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었으나 초창기에는 소설의 비중에 높아 코믹을 빼고『쥬네(JUNE)』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이후 1983년 소설『쥬네(JUNE)』가 분리되면서 현재 코믹 『쥬네(JUNE)』로 발행하고 있다. 창간 초기에 타케미야 케이코, 요시다 아키미같은 인기 작가들이 표지 일러스트를 그려 화제가 되면서 타카구치 사토스미, 카토 휴우키, 시라이 리사등이 야오이계의 유명작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림 1. 일본 동성애 만화잡지
출처: 쥬네(JUNE) 1988.

그림2. 바람과 나무의 시
출처: 타케미야 케이코, 1976.

1970년대 중반에는 타케미야 케이코의『바람과 나무의 시』나 마야 미네오의『파타리오』와 같은 작품들이 탄생하였다. JUNE(쥬네)라는 만화잡지를 통해 B·L 만화가 일본 만화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매김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B·L 만화시장은 여심을 건드릴 수는 있었으나, 잠깐 반짝이는 것으로 독자들을 끌어당기지는 못했다. 더구나 일본의 만화 동인지시장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형성이 불가능 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만화 동인지시장보다 몇 배나 큰 행사를 진행하는 일본의 만화 동인지시장은 직접

활동하는 아마추어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비하는 독자들로만 이루어 졌는데, B·L 만화시장 형성에 있어 2차적 소비와 독특한 팬 문화를 가져다주었다. 1980년대 이후 일본 소녀만화시장의 슬럼프가 시작되는 동안, 만화 동인지시장에선 자신이 즐겨보는 만화를 자기가 원하는 구도로 재구성하는 패러디가 시작이 되었다.

그림3. In Last Summer (슬램덩크 동인지)
출처: 아야노 아마네, 2000.

이것이 B·L 만화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연재되거나 완결된 유명한 만화들은 당연한 듯 패러디 형식의 B·L 만화를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거치면서 원작 작가는 새로운 팬들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표적으로『세인트 세이야』, 『사무라이 트루퍼』, 『내일을 향해 프리킥』을 이어 1990년대 화제작으로 알려진 『슬램덩크』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선호하는 잘생긴 남성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만화들은 연재내용을 벗어나 제2의 내용으로 또 다른 인생을 보내게 되었다. 이후 단행본으로 출판된 B·L 만화들은 번역되어 여러 나라에 수출되면서, 일본 뿐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지역에서도 비롯한 여러 세계 여성 독자들이 B·L 만화를 그리거나 구독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등 7세, 12세, 15세, 17세, 19세 등으로 세밀하게 등급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의 심의등급[23] 규정은 애매한 등급제한으로 공중에

2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도서에 관련된 심의규정 등급은 일반적으로 전체 이용가와 19세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적으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떠있는 실태이다. 이런 문제로 B·L 만화 내용에 동성 간의 성행위 장면이 들어있음에 불구하고도 19세 미만 표시가 없이 유통되는 책들도 있다. 이렇게 유통되는 책들을 10대 청소년들이 아무런 정보나 지식도 없이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었을 때, 이로 인해 적든 많든 그들이 받을 성(性) 정체성의 영향과 동성애를 쉽게 볼 수 있다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 B·L 만화의 특성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모든 소재에 있어서 감정이입은 매우 중요하다. B·L 만화를 그리고 구독하는 독자가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다소 격렬하고 자극적인 내용일지라도 언제나 그 중심에는 '사랑'이 존재한다. 다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역할의 캐릭터들이 모두 남성이라는 점이다. 세간에서는 이런 B·L만화의 성관계에 대해 특히 남성들이 강한 혐오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반대로 포르노에서 보여주는 성관계는 무척이나 관대한 편이다.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 대상으로 지배받을 때 반대 입장으로 여성을 지배하고 있는 동성의 남성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으로는 포르노에 등장하는 같은 동성의 여성에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당한다.'라는 느낌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일반 남성들이 B·L 만화에 혐오감을 느끼는 것 역시 여성이 느끼는 불편함과 비슷하다. 그러나 B·L 만화의 경우는 여성에게 그런 불편함이 없다.

"연애나 결혼, 일상생활과 직장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 때문에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심지어 남자친구와 섹스 할 때조차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야오이를 보면 문득 '연애와 섹스를 이렇게 즐길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야오이에 엽기적인 '씬'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게 굴욕적이라거나 학대라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것도 섹스를 즐기는 한 가지 방법이란 생각이 들죠. (동인녀, 35

http://www.kpec.or.kr/index.asp, 2011.05.10.

세)[24]" 앞의 내용은 『주간동아』의 기사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B·L 만화 속에서 성관계를 갖는 캐릭터들은 모두 남성이다. 그 관계 속에서 여성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이입을 시킬 수 있다. 남자를 지배하고 싶을 땐 남자 주인공 역할의 남성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을 시키고, 강하고 매력적인 남성에게 사랑을 받고 싶을 때는 여자 주인공 역할의 남성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을 시킨다. 말 그대로 취향대로 어느 쪽 입장의 캐릭터든 감정이입이 가능하며, 같은 동성의 여성이 아니므로 '당한다.'라는 불편함을 적게 느낀다. 쉽게 보면 B·L 만화는 여성용 포르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 남성들이 포르노 속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여성들 또한 B·L 만화를 통해 지배받는 입장이 아닌 남성을 지배하는 입장으로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심리적인 특성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B·L 만화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하는 것이다.

3. B·L 만화의 구성 : B·L 만화의 성(性) 역할과 이야기 구조

성(性)역할은 일반 순정만화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사랑을 그리듯이, B·L 만화에서도 서로의 입장 구분이 필요하다. B·L 만화의 경우는 남성들끼리 사랑하는 관계를 그리기 때문에 독자는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외모나 성격 등으로 자신이 감정이입할 대상을 선별해야한다. B·L 만화에서는 성(性)역할을 구분할 때 '공(攻)', '수(受)'로 분류한다. B·L 만화에서 보여주는 공수를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 만화에서 보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역할을 생각하면 된다. B·L 만화의 성(性)역할에 가장 보편적인 캐릭터로는 대표적으로『돈이 없어[25]』를 예로 들 수 있다.

24) 추몽, "'야오이' 탐닉 취향인가 호기심인가", 『주간동아』, 2006년 8월 5일, http://jisefu.egloos.com/7364839.
25) 시노자키 히토요, 『돈이 없어』, 대원씨아이, 2003.

그림 4. 『돈이 없어』
출처: 시노자키 히토요, 『돈이 없어』, 대원씨아이, 2003.

<그림4>에서 이미 외모에서부터 보여주는 냉정하고 강인한 성격을 가진 공(攻)역할의 '가노'와 순수하고 지켜줘야 할 것 같은 가녀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수(受)역할의 '아야세'가 등장한다. 처음 보는 장면일지라도 누가 남자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 역할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모로 미리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역할과 성격을 예측하고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 역할에 독자의 감정이입을 시킬 수 있게 된다.『돈이 없어』는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허구성이 강한 B·L 만화인데, 초반 등장부터 사촌이 진 빚 때문에 '아야세'가 벌거벗겨진 채로 경매장에 나오는, 파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 그곳에서 2억 엔을 주고 '아야세'를 산 '가노'는 과거 자신이 쫓기던 시절, 갈 곳이 없는 자신을 도와준 '아야세'에게 반하면서 경매에 끌려간 그를 도와주기위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2억 엔이라는 금액을 '아야세'의 빚으로 바꿔 강제적인 관계를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된 내용으로도 충분히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현실에서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남성끼리의 사랑은 흔치않다. 그런 면에서 B·L 만화는 여성들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름다운 외모의 남성

캐릭터를 주로 등장시킨다. 허구성이 강한 B·L 만화들은 현실적인 내용은 거의 삭제하거나 함축적으로만 인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야세'의 경우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나마 같이 지내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신다. 그의 주위에 남겨진 사람들은 '아야세'의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맴돌면서 그를 고립시킨다. 그런 그의 곁에 '가노'가 등장하면서 아름다운 외모의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독자는 마치 세상엔 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감정이입을 시킨 캐릭터를 통해 독자는 둘만을 위해 준비 된 세계관에 대리만족을 얻는다.

하지만 B·L 만화가 허구성을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소재는 동성애이다. 이것은 허구가 아닌 현실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B·L 만화처럼 현실의 동성애가 금방이라도 백마 탄 왕자님이 나타나 구해줄 것 같은 밝은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B·L 만화를 구독하는 10대 여학생들은 단순히 즐기기 위한 하나의 놀이이며 팬픽소설이나 만화를 본다고 전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인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모 양(19)[26]" 『주간 현대』의 기사에서 10대 여학생의 인터뷰 내용처럼 B·L 만화를 읽으며 즐기는 놀이는 될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동성애가 하나의 놀이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이다. B·L 만화를 통해 여성독자들의 판타지와 일탈에 대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허구만을 다루는 B·L 만화가 아닌 현실성을 다룬 B·L 만화도 필요하다. 요즘은 영화에서 현실적인 동성애 소재를 다루면서 '퀴어[27]'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화에서 '퀴어'라고 불릴 만큼의 B·L만화는 드물다.

허구성 B·L 만화가 쏟아져 나오던 2000년대 이후 동성애에 대해 현실성을 다룬 만화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바로『아기와 나[28]』의 작가로 알려진 리가와 마리모의『뉴욕 뉴욕[29]』이 대

---

26)문지혜, "소녀들의 위험한 상상 '야오이문화'", 『주간현대』, 2010년 1월 18일,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119261&section=sc2.

27) 다음 시사상식사전, 이상한, 기분 나쁜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주변에서 동성애자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을 빗대어 동성애자 스스로가 자신들을 퀴어라 풍자하기 시작하면서 동성연애자라는 의미로 통하게 되었다. 그 뜻이 영화계에서 다뤄지면서 뜻의 의미들이 조금씩 확대되어 현실적인 동성애를 다룬 작품을 일컬을 때도 사용하게 되었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7XXXX5371.2011.05.10.

28) 리가와 마리모, 『아기와 나』, 대원씨아이, 1993.

표적이다. 이 만화가 등장한 뒤 처음으로 B·L 만화가 '퀴어'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림 5. 『뉴욕 뉴욕』
출처: 리가와 마리모, 『뉴욕 뉴욕』, 대원씨아이, 2002.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역할의 '케인'과 '멜'은 B·L 만화의 특성 중 하나인 잘생긴 외모를 가진 캐릭터들이지만, 앞에 설명했던 '가노'와 '아야세'와는 다른 분위기를 나타낸다. 작가들의 그림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표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배하고 당하는 입장이 아닌 서로 대등한 존재로 있다는 것이다. 이 만화가 현실성에 대해 인정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허구성이 강한 대다수의 B·L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동성애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는 게이가 아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였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자신과 다른 성을 가진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사랑함에 있어 그것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분명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져와야할 여러 논란거리들로 인해 내용이 복잡해지므로, 그

29) 리가와 마리모, 『뉴욕 뉴욕』, 대원씨아이, 2002.

부분을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다. 그러나 『뉴욕 뉴욕』은 자신들이 '동성애자' 임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위치와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아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간다. 남자 주인공 역할의 '케인' 이 바로 그런 캐릭터이다. 그러다 맨하탄의 게이 바에서 '멜' 을 보고 첫눈에 반하면서 그와 사귀게 된다. 보통 허구성이 강한 B·L 만화에서도 첫눈에 반하는 설정은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바로 자극적인 성묘사로 들어간다. 하지만 '케인' 과 '멜' 의 사이는 조금 다르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중에 '케인' 은 왼손잡이냐는 질문에 "왼손잡이는 게이가 많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라고 되받아친다. 작은 대화들이 오가며 서로를 알아가고, 자신들의 세계를 같이 조금씩 늘려간다. 하지만 세상은 그 둘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케인' 은 '멜' 과 사귀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이 게이임을 들키게 되고,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며 멸시와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다. 그리고 같은 동료인 '고슈' 가 에이즈로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이 도박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과 불안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들이 바로 현실의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사회의 고독과 편견에 싸여진 진실이다. 작가는 이렇게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려낸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온갖 폭력과 탄압, 상처를 받았던 '멜' 과 자신의 아들을 게이로 만들었다며 '멜' 을 범죄자 취급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케인의 어머니'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가지는 마음의 상처와 입장을 그려낸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서로 포용하고 노력하며 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이 결말은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을 배척시키고, 멸시하는 사회를 향해 그들의 인생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다.

그림10. 『어서 오세요. 305호에』
출처: 와난, 2008, 네이버 웹툰.

최근 비슷한 작품으로는 국내에서 동성애의 현실을 다룬 『어서 오세요. 305호에[30]』가 현재 '네이버' 요일 웹툰으로 연재 중이다. 이 만화는 자칫 무겁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었던 동성애를 진지함과 코믹한 내용을 적절히 섞어 부담 없이 읽도록 표현하면서,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한 개개인의 인성과 도덕심, 가족과의 갈등과 이해, 사회의 현실과 냉대를 받아온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동성애 만화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Ⅲ. B·L 만화에 대한 현황 분석

위의 서론에서 B·L 만화의 시장규모는 60%를 차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표1>은 국내 만화시장에서 매달 출판되는 B·L 만화들과 판매현황을 알아보았다. 신간 리스트 기준으로는 2011년 6월부터 2011년 8월 초에 출판된 B·L 만화를 중점으로 하였

30) 네이버 웹툰, 와난, 『어서 오세요. 305호에』, 2008. 네이버 웹툰으로 정식 연재 중. 평범하게 자라온 대한건아 김정현과 그의 룸메이트 김호모. 하나부터 열까지 정반대인 그들이 겪는 민감하고 민망한 이야기 속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해 코믹함과 진지함을 동시에 다루었다.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5735&weekday=thu&page=17.

다. 판매현황은 인터넷 서점 (YES24,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대교리브로, 반디 앤 루이스, 도서11번가, 영풍문고)들을 참고하였는데, 현황이 권수로 표기되어 있는 '대교리브로'를 기준하였다.

2011년 6월 B·L 만화 신간리스트				
제 목	작 가	출판사	출판날짜	판매현황
돌고 도는 시계의 너와 나	나오노 보라	현대지능개발사	2011.06.01	5,335
활짝 핀 달링 2 - 타카시 비 엠비셔스	야마모토 코테츠코	현대지능개발사	2011.06.01	3,220
신사 협정을 맺자 2	코우지마 나두키	삼양 출판사	2011.06.07	3,267
행복은 무릎 위에	카토 세츠코	현대지능개발사	2011.06.08	2,256
비터 허니	키리시마 타카키	현대지능개발사	2011.06.08	1,199
파인더의 열정 - 한정판	야마네 아야노	현대지능개발사	2011.06.10	18,673
연애 마이너리티	미도리야마 요코	대원씨아이	2011.06.13	846
요염한 유희	타카츠키 노보루	현대지능개발사	2011.06.15	1,363
위험한 이웃	나나미	현대지능개발사	2011.06.15	7,463
비밀의 밤놀이	혼죠 리에	현대지능개발사	2011.06.15	2,045
미안! 마스미	카나메 이츠키	대원씨아이	2011.06.15	1,833
남자미로	아니야 유이지	조은세상	2011.06.20	1,974
교사도 사정이 있다. 2	야마토 나세	현대지능개발사	2011.06.22	1,645
사랑받는 자격	큐슈 단지	현대지능개발사	2011.06.23	705
세계 제일의 첫사랑 4	나카무라 슈운기쿠	대원씨아이	2011.06.24	9,304
사랑에 빠져요, 대디	키타자와 쿄	현대지능개발사	2011.06.28	2,139
남자, 꽃빛으로 물들면	타카이도 아케미	현대지능개발사	2011.06.28	2,045
짹짹이가 짹 2	야마모토 코테츠코	현대지능개발사	2011.06.28	2,867
2011년 7월 B·L 만화 신간 리스트				
연애증명 1	후와 신리	대원씨아이	2011.07.06	1,269
기묘한 이야기 4	스즈키 츠타	현대지능개발사	2011.07.07	6,202
지옥순례 2(완결)	쿠쥬 샵	현대지능개발사	2011.07.07	2,139
왕자를 주웠습니다.	오츠키 미우	현대지능개발사	2011.07.07	2,186
하현달 밤 이야기 1	후지야마 효우타	대원씨아이	2011.07.08	2,656
동정최전선 3 - 강철의 대천사	미즈카미 신	현대지능개발사	2011.07.13	1,128
매드 신데렐라	야마모토 코테츠코	현대지능개발사	2011.07.14	2,961
키스가 있었다. 1	닛타요우카	현대지능개발사	2011.07.14	4,794
좋아하면 내 마음은 부서질거야	니시다 히가시	현대지능개발사	2011.07.20	1,269
눈꺼풀의 춘정	타카미 지로	대원씨아이	2011.07.22	1,152
[동인지] 드레스 코드 6	나예리	젠틀맨리그	2011.07.25	23,120
심하게 굴지 말아줘 2	네코타 요네조우	현대지능개발사	2011.07.27	2,985
속 호랑이와 늑대 4	하루노 아히루	현대지능개발사	2011.07.27	1,340
2011년 8월 B·L 만화 신간 리스트				
물발웅 꽃잎 사과향기 1	카와이 토코	현대지능개발사	2011.08.04	1,011
ZE-10	시미즈 유키	현대지능개발사	2011.08.05	5,991
닥터의 은밀한 즐거움	타카자와 타에코	현대지능개발사	2011.08.05	1,081
망상 일렉텔 2	네코타 요네조우	현대지능개발사	2011.08.11	893

표1. 2011년 B·L 만화 신간 리스트 : 『대교 리브로』 참조

<표1>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B·L 만화들은 수입된 것들이

었고, 평균적으로 1000권~2000권 이상 판매율을 가지고 있었다. 간혹 국내 만화가들이 낸 B·L 만화도 있었는데, 국내 순정만화가인 '나예리[31]' 작가의 경우 『[동인지] 드레스 코드 6』가 2만3000권 가량의 판매율을 보였다. 위의 B·L 만화의 간략한 소개내용들을 읽어 본바 대부분이 허구성이 강한 B·L 만화임을 알 수 있었다.

1. 설문 응답 성별 및 연령대 현황

설문을 하기위해 찾아간 '코믹월드' 진행위원에게 설문에 대한 의뢰를 했으나 복잡한 관람객들과 행사 진행상의 이유로 공식적인 설문은 불가능했다. 대신 행사장 밖에 대기하고 있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성별 및 연령대 현황을 조사하였다. 총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184명으로 여성 124명, 남성 62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현황 조사내용은 여성과 남성의 설문 현황비율의 정리를 위해 여성 120명, 남성 60명 총 180명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Q. 설문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대				
연 령 대	성 별			
	여성		남성	
초등학생	18명	15%	0명	0%
중학생	50명	41.7%	18명	30%
고등학생	19명	15.8%	22명	36.7%
대학생	17명	14.2%	15명	25%
기 타	16명	13.3%	5명	8.3%
합 계	120명	100%	60명	100%

표 2. 설문 응답자 현황표

<표2>는 설문에 응답한 인원과 성별 및 연령대를 통계한 내용이다. 응답자는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중학생이 50

31) 아마추어 만화동호회 'PAC' 회원. 1992년 『탐정이 될래요』라는 작품으로 데뷔. 『1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를 연재로 인기 순정만화작가로 알려지면서 『네 멋대로 해라』『피터 판다』 등 많은 인기 작품들을 연재했다. 현재 순정만화 연재와 B·L 만화 동인지 작업하면서 활동 중이다.

명(41.7%)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은 여성이 19명 (15.8%)로 수험준비를 위해 참가나 관람을 자제하는 추세였는데 이와 반대로 남성은 고등학생이 22명 (36.8%)로 나타났다. 전체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에 비해 수가 남성의 수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는 고등학생 외에 큰 편차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앞의 언급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에는 수험준비로 잠시 활동이나 관람을 중단했다가, 수험이 끝난 후 다시 활동을 재개하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적은 수가 참여를 하였다.

Q. B·L 만화를 처음 본 시기											
현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기타	
초등학생	여성	9명	7.5%								
	남성										
중학생	여성	26명	21.7%	23명	19.2%						
	남성	2명	3.3%	6명	10%						
고등학생	여성	5명	4.2%	11명	9.2%	3명	2.5%				
	남성	2명	3.3%	17명	28.3%						
대학생	여성	4명	3.3%	11명	9.2%	3명	2.5%				
	남성	1명	1.7%	10명	16.7%	4명	6.7%				
기타	여성	9명	7.5%	7명	5.8%	1명	0.8%	1명	0.8%		
	남성			3명	5%	2명	3.3%				
본적 없음	여성	7명				5.8%					
	남성	13명				21.7%					
합계	여성	120명				100%					
	남성	60명				100%					

표 3. B·L만화를 처음 접한 시기 현황표

B·L 만화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나이제한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겨져 있는 동성애라는 소재와 10대 청소년들에게 한창 호기심 가득한 성(性)을 다루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렇게 접하게 된 시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동성애에 대해 무분별한 환상이나 동경의식을 일으킬 수도 있다. “3년 전 동성애에 대한 고민으로 가출까지 했다. 멋진 남자 동성애자들이 등장하는 만화를 보고 난 뒤

그들의 모습을 동경하면서 옷차림과 말투가 남자처럼 변했다. 조모 양 (18)[32]" 『국민일보』의 기사내용 중 고등학교 여학생의 인터뷰이다. 대부분의 B·L 만화를 보는 10대 청소년의 경우 허구성임을 인지하고 재미로 읽는다지만, 자신의 성(性)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없는 청소년일 경우 이에 대한 환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90년대 후반에 수입되었던 B·L 만화들이 등급제한 없이 유통되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B·L만화를 접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표3>는 이를 현황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 B·L만화를 처음 접하게 된 시기를 조사한 내용이다. B·L만화를 접한 응답자중 초등학교 때 처음 봤다는 여성은 53명(44.2%)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때 봤다는 여성 응답의 경우 52명(43.3%), 고등학교 때 처음 본 여성은 7명(5.8%)였다. 남성 응답자들은 초등학교 때 처음 봤다는 남성은 5명(8.33%)였지만, 성(性)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할 시기인 중학교 때 봤다는 남성이 36명(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봤다는 남성은 6명(10%)였는데, B·L만화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각각 여성 7명(5.8%), 남성 13명(21.7%)로 상당히 낮은 수치였다. B·L 만화가 동성 간의 사랑을 다루는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릴 때부터 거부감 없이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B·L만화의 구독 및 인지도 현황

Q. B·L만화 구독여부								
성별	본다.		안본다.		(보진 않지만) 의미는 알고 있다.		합 계	
여성	99명	82.5%	11명	9.2%	10명	8.3%	120명	100%
남성	9명	15%	27명	45%	24명	40%	60명	100%

표 4. B·L만화 구독 여부 현황표

코믹월드의 대부분 참여자와 관람객들은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다. 그 중에서도 B·L 만화를 그려서 판매하는 참가자들

32) 전승훈, "청소년 '동성애 유혹' 무방비", 『국민일보』, 2003년 4월 3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143708.

이 대부분이었고 거의 여성참가자들이었다. <표4>는 10대 청소년들이 코믹월드에서 B·L만화를 직접구입하거나,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단행본을 얼마나 구독하는지 조사하였다. 이 설문은 B·L만화를 얼마나 많이 보는가에 대해 더 중점을 둔 것으로 직접 구입하지 않고 친구가 대신 구입, 절반씩 지불하여 구입한 것까지 포함시켰다. 예상대로 B·L만화를 보는 사람은 여성이 99명(82.5%)로 가장 많았고, 의외로 구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남성은 9명(15%)로 조사되었다. '왜 보느냐'의 인터뷰에 대부분의 여성은 '흥미롭다. 재미있다.'와 '그림이 예뻐서', '친구의 추천'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남성의 경우는 '호기심'으로 본다고 대답하였다. '의미는 알지만 보지 않는다.'라는 설문에는 여성 10명(8.3%)로 남성 24명(40%)보다 적었다. 구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통적으로 남성과 여성 둘 다 '징그럽다.'로 대답했다. 남성의 경우는 좀 더 강한 반감을 드러냈는데, '남자들끼리 나와서 싫다.', '비윤리적이다.', '그냥 싫다.', '왜 보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대답하는 반면 대조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보지는 않더라도 '각자의 취향은 존중한다.'라고 좀 더 긍정적인 대답하였다.

Q. B·L만화의 인지도는 높다. / 낮다								
성 별	높다.		낮다.		기타 (중간정도)		합 계	
여 성 (120명)	104명	86.6%	11명	9.2%	5명	4.2%	120명	100%
남 성 (60명)	47명	78.3%	2명	3.3%	11명	18.4%	60명	100%

표 5. B·L만화의 인지도 현황표

<표5>는 국내 만화시장에서 B·L만화에 대한 인지도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코믹월드에서 판매하는 만화 동인지와 출판사에서 판매하는 단행본들을 포함하여, B·L만화의 인지도가 '높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여성이 104명(57.8%), '낮다.'고 응답한 여성은 11명 (6.1%)으로 많은 수가 만화시장에서 B·L 만화가 차지하는 인지도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다. 반감을 많이 드러냈던 남성의 경우, '낮다'고 응답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B·L만화의 인지도가 '높다.'고 47명(26.1%) 인정

하였다.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낮다.'로 응답한 남성은 불과 2명(3.3%)였다. '기타(중간정도)'로는 여성은 5명(2.8%)로 응답했고, 남성은 11명(6.1%)로 여성보다 많았다. <표5>의 인지도 현황으로 볼 때 구독여부나 선호도에 상관없이, B·L만화가 만화시장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Ⅴ. 결론

국내 만화시장에서 B·L만화의 판매율은 상당하다. B·L만화로 여성작가들과 여성독자들의 활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늘어나면서, 아마추어 만화동인지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비율 편차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국내 만화 동인시장과 B·L 만화가 빠르게 활성화 된 요인이기도 하다. 국내 만화동인지 시장에서 B·L 만화에 대한 소비현상이 늘어나면서, 출판사 또한 이를 바탕으로 출판하는 단행본 역시 늘어나는 소비자들로 인해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 왔다. 2000년대부터는 국내 순정만화 작가가 그린 B·L 만화가 출판하는 등, 일반 순정만화에서도 가볍게 표현될 만큼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B·L 만화가 많은 인지도와 독자층으로 각광받아도, 이를 통한 국내 만화시장 발전에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다. B·L 만화가 동성애라는 파격적인 소재임에도, 구독하는 많은 여성들 중에 주 독자들은 대부분이 10대 여학생들이다. 이미 성인인 경우 성(性)정체성의 확립과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보를 확립하여, B·L만화의 내용이 허구임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B·L만화를 접하는 연령대가 초등학생 때임을 볼 때, 10대 청소년들 중에 자신의 성(性)정체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에 대한 현실성을 느끼지 못하고, 성(性)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2005년에 조사된 설문[33]에 따르면 자신에게 동성애 성향에 대한 고민을 해본 청소년이 (11.0%)를 차지한다. 그중에 남성(4.1%), 여성(12.2%)로 여성이 더 많은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갖는다. 설문에서만 보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들의

33) 신윤동욱,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한겨레21』, 2005년 12월 6일, 588호, http://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5/12/021003000200512060588013.html.

성 정체성에 대해 정확한 확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성애를 다룬 내용을 무분별하게 접하게 된다면,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동경심으로 모방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B·L만화를 보는 것을 무조건 금지한자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B·L 만화의 유통에 앞서, 세분화된 등급제한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등급이 세분화로 나누어져 있지만, 국내의 경우 2개정도로 대략적이다. 이로인해 국내에선 쉽게 B·L만화를 접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의 출판되는 대부분의 B·L 만화가 19세 미만구독으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주 독자층은 10대 청소년이다. 과거 이런 문제로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제대로 된 방안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해지기 일쑤였다.

본 연구를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인터뷰를 할 때 B·L 만화를 보는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B·L 만화가 허구성이 강한 만화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있는 동성애에 대한 정보는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다. 대부분의 B·L 만화가 허구임은 맞지만, 현실의 동성애자들은 상류층이 많고, 잘생긴 남성들이 동성애자일 확률이 높다는 편견이 있었다. 대부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이러한 편견이 마치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동경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로 볼 때 B·L만화를 보기에 앞서 세분화된 제한등급과 그들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만화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어 줄 연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B·L 만화를 그리는 작가의 경우, 동성애가 무엇인지와 하나의 유희거리로만 다루지 않고, 그들이 얼마만큼의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동성애라는 주제를 만화에서는 어떤 시각으로도 풀어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B·L만화를 통해 터부시 되어왔던 동성애가 사회의 양지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들에게 갖는 편견들이 줄어들고, 그들에게도 인격존중과 이해를 조율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현황 설문 조사를 통한 대부분의 10대 청소년들은 B·L 만화를 통해 동성애자를 보는 시각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무조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부류가 아닌 그들 또한 인격이 있는 같은 사람으로서 대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동성애를 다루는 B·L 만화시장에 세분화된 기준을 세우는 것은, 훗날 국내 만화시장 형성에 있어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방도로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1997.
에릭 마커스, 컴투게더 외 역, 『Is It a Choice? (동성애에 관한 300가지 질문, 국판)』, 박영률 출판사, 2006.
이요나, 『동성애 사랑인가』, 지혜문학, 2008.
김민정, "사이버 여성 문화로서 팬픽(fanfic) 연구 : 환타지(fantasy)와 성정체성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이민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20대 여성들의 도락, '야오이' 의 은밀한 사랑에는 엿보는 쾌감이 있다.", 『한겨레 21』 , 2000, 제322호.
신윤동욱,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한겨레21』, 2005년 12월 6일, 588호,
http://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5/12/021003000200512060588013.html.
전승훈, "청소년 '동성애 유혹' 무방비", 『국민일보』, 2003년 4월 3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143708.
추몽, "'야오이' 탐닉 취향인가 호기심인가", 『주간동아』, 2006년 8월 5일, http://jisefu.egloos.com/7364839.
문지혜, "소녀들의 위험한 상상 '야오이문화'", 『주간현대』, 2010년 1월 18일,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119261&section=sc2.
NAVER, http://blog.naver.com/k2zeby, 송락현, "일본 소녀만화 잡지사 90-2000 Y계열 잡지들의 부상", 2009년 12월 28일, http://blog.naver.com/k2zeby/10077151015.
NAVER, http://crazygeno_kr.blog.me, 게이총각, "만화에서 다루어지는 동성애", 2010년 7월 26일, http://crazygeno_kr.blog.me/120111918840.
daum, http://krdic.daum.net/dickr/search.do?q=%ED%8C%AC%ED%94%BD, 2011.05.10.
daum,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5735&weekday=thu&page=17. 2011.05.10.
daum, 국립 국어원 신어자료집,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7XXXX5371.2011.05.10.
Naver, www.naver.com, "어서 오세요. 305호에", 2008년 3월 3일,
Naver, www.naver.com, 검색어 : 야오이, 동성애, BL 만화, 팬픽, 동성애 만화, 코믹월드 2011.05.10.
Naver, www.naver.com, 검색어 : 동성애 웹툰, 와난,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5735&weekday=thu&page=17, 2011.04.30.
와난, 『어서 오세요. 305호에.』, 네이버 웹툰, 2008.
리가와 마리모, 『뉴욕 뉴욕』, 대원 씨아이, 2002.
시노자키 히토요, 『돈이 없어』, 대원 씨아이, 2003.
이지련, 『협객기』, 상상미디어, 1999.

ABSTRACT

Study on homosexual comics in Korea : about B·L (Boys Love) comics

Ahn eun sun

The term "ya-o-ii" which is referred as a homosexual comics in Korea came from Japan and it became one of popular genres in both Japan and Korea's comics market. People create yo-o-ii with their own idea or borrow male characters from the pre-existed comics or animation and create a whole new story. Homosexual comics which is based on teenage readers deals with sex and focuses on homosexuality. For that reason it reflects social phenomenon than general material for comics.

Before we focus on influence of homosexual comics on teenagers and social phenomenon, this study is for fundamental understanding on homosexual comics itself. In order to look into current state of homosexual comics, the survey was conducted at "Comic World" which is well known as the biggest offline comic event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range of age and awareness of readers of homosexual comics on the basis of the survey. Hopefully, this study helps better understand an influence of homosexual comics on teenage readers with problem of sex identity and contribute to the study of market segmentations of homosexual comics.

Key Word : Homosexual comics, B·L comics, Ya-o-ii, FanFic

안은선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대학원
(500-110)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우성아파트 107동 701호
Tel : 062-268-0360
jj8084@naver.com

논문투고일 : 2011.05.15
심사종료일 : 2011.09.01
게재확정일 : 2011.09.08